

<http://dx.doi.org/10.17703/JCCT.2019.5.4.131>
JCCT 2019-11-17

테크노 음악 40년의 음악사 및 산업기술적 측면에 대한 고찰

A Review of 40 Years of Techno Music: Music History and Industrial Technology

이성훈

Sunghoon Lee

요약 테크노팝이라는 용어가 40년전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테크노 음악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테크노 음악을 음악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적은 편이며, 특히 그 태생적 특성과 관련하여 산업 기술적 측면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테크노가 본격 태동하던 시기의 디트로이트 테크노와 관련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특히 큰 성공을 거둔 유럽의 테크노 문화, 그리고 테크노 음악의 산업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테크노 음악의 발전과 관련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 테크노, 테크노음악, 전자음악, 음악사

Abstract Since the term technopop was first used 40 years ago, techno music has evolved with technological advances. However, few studies have examined techno music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techno music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Therefore,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historical context of techno music from the early days of Detroit techno as well as the industrial significance of techno culture in Europe. We also provide suggestions regarding the further development of techno music.

Key words : techno, techno music, electronic music, music history

1. 서론

테크노 음악(Techno music)은 컴퓨터와 신시사이저, 그리고 샘플러, 드럼 머신 등의 전자기기 및 악기를 이용해 멜로디와 가사를 최소화하는 전자음악의 일종이다. 이때 동일한 멜로디와 비트를 반복하는 반복성이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1979년, Kraftwerk가 일본 투어를 할 당시에 「MODERN MUSIC」 등의 일본 음악잡지에서 이들의 음악을 테크노팝이라 칭한지 올해로 40주년이 되었다.

이후 1980년에 Yellow Magic Orchestra가 미국 투어를 진행하며 스스로의 음악을 'technopop'이라고 소개하였고,

「ROLLING STONE」지는 당시 이들의 투어를 기록하면서 이들의 '테크노팝'에 대해 Gary Numan 혹은 Kraftwerk등이 시도하던 신시사이저가 주도적인 음악이지만 약간의 디스코, 재즈, 클래식 및 전통 일본 음악이 들어갔다고 표현하며 해당 음악 장르에 대한 규정을 시도한 바 있다(<https://www.rollingstone.com/music/music-news/yellow-magic-orchestra-188812/>)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음악의 다양한 장르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었으며, 그 중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입과 더불어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장르는 단연 테크노 음악으로 보인다.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작업 환경의 큰 변화를

*정회원, 한양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강의전담 조교수
접수일: 2019년 9월 8일, 수정완료일: 2019년 10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16일

Received: September 08, 2019 / Revised: October 02, 2019
Accepted: October 17, 2019

*Corresponding Author: zgundam@hotmail.co.kr
Dept. of Applied Music, Hanyang Women's University, Korea

필요로 하지 않기에, 해당 음악 산업의 경우 다른 어떤 장르에 비해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신속히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해당 음악의 역사나 정체성이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학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에 급격한 변화가 도래할 해당 예술 영역의 연대기를 상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부응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고찰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겠다.

II. 테크노 음악의 태동

1. 하드웨어의 개발

전자기기의 출현 및 개발은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1]. 제너럴 일렉트릭(GE)에 인수되기 직전(1986)까지 미국 내에서 굉장한 성장세로 라디오와 TV등 방송통신 기기를 보급하던 기업인 RCA(Radio Corporation of America)는 1960년, 록펠러 재단의 막대한 지원을 토대로 작곡가 Milton Babbitt 등을 고용하여 RCA의 두 번째 프로그램 신시사이저인 Mark II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전문 작곡가들이 사용하되 기계의 언어를 음악적 표기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민하던 RCA의 Sarnoff Laboratories 연구자들은 아날로그 모듈과 디지털 프로그래밍 명령어 조작용이 가능한 본 하이브리드 악기의 출현에 대해 “음악적 사운드의 혁명revolution in musical sound.”이라 자평하였다.

당시 Babbitt은 불협화음을 조성하고자 쇤베르크 Schoenberg의 불협화음Dissonanzen에 대한 개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Columbia-Princeton Electronic Music Center에서는 1959년, Babbitt 등이 참여한 앨범을 제작하였고 1963년 TV 시리즈의 배경음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Ron Grainer 와 Delia Derbyshire가 첫 번째 전자 음악으로 기록되는 닥터 후의 테마송을 작곡한 바 있다.

Mark-II가 제안된 지 4년 후 Cornell 대학의 Robert Moog 박사는 Moog Modular Synthesizer를 Mark-II보다 더 작은 크기,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하였고 이를 1964년 뉴욕에서 개최된 Audio Engineering Society 학회에서 선보였다. 더 이상 펀치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키보드를 통해 연주되는 방식을 취했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Moog의 신시사이저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2. 전자 음악의 시작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Ralf Hütter와 Florian Schneider 가 결성한 듀오 밴드인 Kraftwerk는 전위적이며 혁신적

인 전자음악 사운드를 추구하였다. 신시사이저, 보코더, 드럼머신 등의 전자 악기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스스로의 음악을 “robot pop” 스타일로 규정한다.Kraftwerk는 Autobahn (1974), Trans-Europe Express (1977), The Man-Machine (1978) 등의 앨범을 연이어 발표하며 평론가들과 대중의 극찬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82년에는 'Technicolor' 라는 타이틀의 앨범을, 1986년에는 'Techno Pop'이라는 곡을 발표하였다. 특히 그들이 기성품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자체 제작한 악기를 활용하고 혹은 목적에 맞게 주문 제작한 보코더 장치들을 사용한 사례들은 이후 많은 테크노 음악 작곡자들의 작업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후반, 신시사이저의 공격적 사용을 토대로 디스코 음악 장르를 구축한 Giovanni Giorgio Moroder의 세계적인 성공 역시 전자 음악 발달을 가속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III. 테크노 음악의 시작

1. 디트로이트 테크노

전술한 바와 같이 ‘테크노’ 라는 수식어는 이미 다양한 문화권에서 자신들 음악의 도구를 표현하기 위한 부수적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자신들의 하는 음악을 정확히 테크노로 규정한 그룹은 미국 디트로이트 중산층 흑인문화를 바탕으로 한 Belleville Three였다. 1800년대 중반 무렵 미국 최대의 제조업 도시로 성장한 미시건 주의 디트로이트는, 백인들이 도시 외부로 이주하고 생산 공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던 흑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이후 백인 상류층과 함께 자동차 회사 및 제조 공장들이 디트로이트에서 옮겨가던 중 인종차별적 법 집행이 도화선이 된 1967년 ‘디트로이트 폭동’마저 발생하자 급격한 몰락을 겪게 된다.

Moroder를 위시한 화려하고 매력적인 디스코를 동경하던 흑인 중산층의 파티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모타운 Motown 음악, 힙크, 시카고 하우스뮤직, 디스코와 신스팝, 그리고 재즈를 융합한 전복적인 전자음악을 실험하는 장이 된다. 특히 Belleville Three를 결성한 Derrick May, Juan Atkins, Kevin Saunderson은 Belleville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류하며 Atkins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최초의 테크노 음악들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함께 또 독자적으로 주요한 테크노 음반들을 발매하였으며, May, Atkins, Saunderson가 각자 Transmat, Metroplex, KMS라는 레이블을 운영하며 디트로이트를 넘어 더 광범위한 지역에 빠르게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속도를 내게 되었다. 더욱이 Atkins

가 한 인터뷰 <https://www.wired.com/1994/07/techno/> 에서 밝혔듯 고등학교 시절 공상과학 소설을 읽고 미래학 Future Studies 에 대해 공부하면서 미래학자 Alvin Toffler의 「Future Shock」를 읽었던 경험은 이 새로운 장르가 인류가 경험할 미래를 청각적으로 한껏 자극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Toffler의 과학적 통찰은 'cybotron' 혹은 'metroplex'라는 새로운 그룹 혹은 레이블 명이 출현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했으며 실제로 1981년 Atkins는 Cybotron이라는 그룹명으로 첫 번째 싱글음반 "Alleys of Your Mind"을 발매하였다.

이들의 음악은 황폐화된 디트로이트를 퓨처리즘으로 가득 메꿀 듯 미래지향적이었고 이는 지역의 젊은이들 뿐 아니라 유럽 특히 독일과 영국의 청취자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미국에서보다 유럽에서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던 이유는 당시의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특이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클럽 문화가 극단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엄격한 사회경제적 위계를 가지고 폐쇄적인 규칙에 의해 형성된 미국과 달리,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실험적 공연을 마다하지 않는 DJ들의 시도들로 이 새로운 미래적 사운드가 더 빠른 속도로 대중의 취향과 부합하는 방법을 찾아 나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epeche Mode가 Synthpop 장르를 내세워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 전자음악 사운드에 이미 익숙해져 가고 있던 영국과 달리, 거대한 음악 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음악 장르가 아프리카메리칸에 의해 처음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미국에서 테크노 음악에 산업 자본이 집중되는 일은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졌다.

미국 알칸사스 출신의 Electrifying Mojo (Mojo, 본명 Charles Johnson) 역시 디트로이트에서 DJ로 활동하면서 테크노 음악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어떤 개입도 없이 해당 음악가의 다양한 음악을 장기간에 걸쳐 재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Mojo는 Prince와 Kraftwerk를 알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에 디트로이트에서 테크노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하던 Neil Olliviera는 'Mojo는 흑인 젊은이들에게 '백인들의' 음악을 들어도 된다고 말해준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Mojo의 공은 그 무엇보다 일반적인 방송매체와 거리를 유지했던 Belleville Three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며 초기 테크노 음악의 녹음을 도와 디트로이트 테크노를 융성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었다.

한편 인접한 지역에서 발전을 지속해 온 시카고 하우스뮤직 역시 산업의 쇠퇴로 인한 디트로이트의 몰락과는 별개로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었다.

1984년 경 DJ Jesse Saunders 의 "On and On"은 첫 번째 하우스 음반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아 1988년 'Techno! The New Dance Sound of Detroit' 앨범이 발매되었다. 당시 수록된 열두 곡 중 5곡은 Juan Atkins, Kevin Saunderson, Derrick May가 작곡한 것이었으며, 이후 이들이 하는 음악의 장르는 명백히 '테크노 음악'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이후 Jeff Mills, Carl Craig, Underground Resistance, Drexciya, Robert Hood, Richie Hawtin, Joey Beltram, Octave One, Blake Baxter, Dopplereffekt 등의 디트로이트 테크노로 분류되는 이들이 독일 테크노 레이블 Tresor Records등을 통해 가치 있는 음반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2. 전자 악기의 개발

1980년대 이후 테크노 음악을 시도하는 음악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자 악기의 쓰임새는 비교적 명료해지기 시작했다. 반복적이고 절제된 기계음을 잘게 쪼개 음악을 구성하는 데 있어 최초의 MIDI 장비인 Yamaha DX-7 신시사이저가 1983년 판매되기 시작하며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80년 전자 드럼인 Roland's TR-808 가 Roland Corporation에서 제조된 이후 샘플링과 MIDI를 목적으로 하는 첫 번째 전자 드럼인 TR-909 가 출시되면서 테크노 음악, 하우스 및 애시드 음악에 큰 자극이 되었다. 당시 판매 가격은 1200불에 달하였고 대중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전자 음악의 출현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음악 장르의 도래를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IV. 유럽의 테크노 문화

1. 영국의 레ιβ (Rave) 파티

1988년 이후, 테크노 음악과 엑스터시 오남용으로 특징지어지는 레ιβ (Rave)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며 테크노 음악에 대한 인기가 크게 높아졌다. 영국의 클럽, 격납고나 천막으로 된 공간, 혹은 창고 등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레ιβ 파티는 80년대 이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유럽과 미국으로 번져갔으며, DJ 혹은 음악가가 테크노, 애시드 음악 등 전자음악을 밤새도록 연주하는 대규모 댄스 파티는 젊은 세대들의 소비와 여가 성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문화규범으로 작용하였다.

큰 서브 유포를 이용해 크고 강력한 저음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당시 레이저 쇼, 영상 효과 및 안개 효과 등 무대 연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으며 다양

한 테크노 음악을 유럽에 소개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으나, 약물 오남용과 폭력 사건 등 사회의 우려를 낳는 일들이 지속되면서 한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지중해 섬인 이비자의 파티는 여전히 레ιβ 문화를 대표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메이데이(Mayday) 페스티벌 역시 대표적인 레ιβ 파티였다.

2. 독일의 러브퍼레이드 (Loveparade)

1989년 여름, 독일의 테크노 DJ인 Dr. Motte(본명 Matthias Roeningh)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며 'Friede, Freude, Eierkuchen' (평화, 환희, 달걀 케이크)이라는 슬로건으로 테크노퍼레이드를 기획한다. 당시 주최자들은 동서독 간의 화합 및 군비축소, 그로 인한 기쁨을 말하고자 했으며 독일 통일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2차 대전 직후 미군에게서 배급받은 물품으로 거칠게 만든 최소한의 음식인 달걀 케이크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역사를 떠올리도록 주문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150여명이 참여한 첫 파티의 성공 이후 이들은 1990년 '미래는 우리의 것'이라는 모토로 2천 명이 참가하는 본격적인 '러브 퍼레이드'를 시작하였다. 매해 모토는 달리하였으며 베를린 승전기념탑을 중심으로 티어가르텐(사냥터 공원)에서 일대의 거리에서 테크노 파티를 개최하였다. 참가인원은 해를 넘길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 독일 통일 이후에도 해당 퍼레이드는 지속되어 퍼레이드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참가자는 11만 명을 넘어선다 (1992년). 이후 1997년에는 100만 명의 참가자를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참여자가 늘어나 이 무료 축제는 전세계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며 테크노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였다. 2010년, 140만 명의 인파가 몰린 러브 퍼레이드의 축제장 입구의 터널과 좁은 계단에서 19명이 압사하고 342명이 부상 당하는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 결국 모든 퍼레이드는 중단될 때까지 해당 문화 행사는 테크노 및 전자음악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러브퍼레이드의 창안자였던 Dr. Motte는 DJ Westbam과 함께 1989년에 최초의 애시드 하우스 클럽인 Ufo club를 설립하여 테크노 파티를 지속 주최하였으나 Planet, E-Werk, Bunker, 그리고 Tresor 클럽의 선전으로 Ufo는 1991년에 영업을 종료하기도 하였다.

V. 1990년대 테크노 앨범의 성공

Moby(본명 Richard Melville Hall)은 1991년, 싱글 앨범인 "Go"를 성공적으로 발표한 후 실험적인 'Everything is wrong' 앨범을 발매한 후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테크노 음악의 새로운 부흥기를 이끌기 시작한다. 이후 빌보드는 그를 테크노의 제왕 (King of techno)이라 칭하였다. 영국의 레ιβ 씬의 문화적 수혜자였던 Prodigy도 같은 해 빅 비트, 정글, , 테크노, 일렉트로닉 록을 기반으로 한 데뷔 음반을 발매한다. 키보드리스트이자 작곡자인 Liam Howlett은 Moog Prodigy라는 자신의 아날로그 신시사이저 이름을 따 본인들의 밴드 이름을 지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듬해인 1992년, Aphex Twin(본명 Richard David James)은 "Selected Ambient Works 85-92"라는 제목의 LP를 발매하였다. 「ROLLING STONE」지는 2002년에 Aphex Twin의 음악에 대해 설명하면서 "테크노는 약에 취한 듯한 댄스 음악druggy dance music 이상일 수 있다"는 평을 덧붙였고 온라인 음악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AllMusic은 그를 "실험적 테크노의 선구자"로 칭하였다.

1990년대 애시드 하우스의 붐이 한창이던 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밴드 Underworld는 22세의 DJ, Darren Emerson을 영입하고 3인조 체제로 거듭나면서 1994년 Underworld의 'Dubnobasswithmyheadman' 앨범을 발표한다. 프로그레시브 락을 바탕으로 멜로디가 다양한 테크노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평가들은 매우 높은 평가를 보내었으며 이후의 앨범들은 계속해서 AllMusic, Drowned in Sound, PopMatters 등의 평론들로부터 평점 만점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테크노 음악의 예술적, 상업적 성공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후 영국 전자음악 듀오인 Orbital의 'Orbital 2' 앨범 (1993), 디트로이트 테크노 2세대 Carl Craig의 'Landcruising' 앨범 (1994) 역시 많은 음악인들이 테크노라는 새로운 장르를 기꺼이 차용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 시기 이후 테크노 음악을 트랙(track)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노래(song)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VI. 2000년대 이후 테크노 페스티벌 산업의 발달

1. 무브먼트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Movement Electronic Music Festival)

테크노가 시작된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음악 페스티벌로, 디트로이트 전자음악제 (Detroit Electronic Music Festival; 2000, 2002년), 무브먼트

(Movement; 2003년, 2004년), 퓨즈인 (Fuse-In; 2005년)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본 행사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디트로이트 하트플라자에서 개최되어 9만9천여 명이 운집한 바 있다 (<https://www.movement.us/>).

이에 앞서 199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타임워프 (Time Warp)는 역시 독일에서 개최되며 올해에도 50여 팀의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크게 흥행하였다 (https://www.time-warp.de/germany/index_eng.html).

이와 같은 분위기와 함께, 1982년과 1990년 일시적으로 개최되었다 중단되었던 Berlin Atonal Techno Festival 이 2013년부터 융합 예술의 성격을 더하여 매해 개최되고 있다. 테크노 음악이 중심이지만 비주얼 아트, 미디어 아트, 과학기술, 전시 등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현대적인 수준의 페스티벌을 구성하고 있다 (www.berlin-atonal.com).

2. 네덜란드

어웨이킹 (Awakenings) 페스티벌은 전자음악 페스티벌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행사 중 하나이며 암스테르담 외곽지역인 Spaarnwoude Houtrak에서 개최된다. 특히 테크노 장르에 연주자들이 집중되어 있다 (<https://www.awakeningsfestival.nl/en/>)

3. 크로아티아

소너스 페스티벌 (Sonus Festival)은 타임 워프의 기획자들도 함께 관여하여 조직화한 대규모 하우스, 테크노 파티로, 5일 동안 개최되며 가장 높은 수준의 공연자들을 섭외하여 그 산업적, 문화적 영향력이 막대하다 (<https://www.sonus-festival.com>).

크로아티아를 경유하는 크루즈 선상 파티 역시 산업계에서 해당 문화를 사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7년 발빠르게 구성된 고가의 상품이다. 2020년 투어의 경우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다시 이탈리아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크루즈 여행 동안의 공연 관람뿐 아니라 숙박 및 식사와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참여비가 상당히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페스티벌이다 (<https://www.theark.cruises/en>).

4. 포르투갈

더 비피엠 페스티벌: 포르투갈 (The BPM Festival: Portugal)은 4일에 걸쳐 테크노 계열 DJ들이 바닷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행사로 유명세를 탔으며 테크노를 비롯한 전자음악 앨범의 쇼케이스를 진행하기에 문화산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 페스티벌이다 (<https://thebpmfestival.com>).

5. 프랑스

더 피코크 소셜 페스티벌 (The Peacock Society Festival)은 파리에서 열리는 가장 큰 페스티벌 중 하나로, 식물원과 창고를 활용한 독특한 분위기와 음악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권위 덕분에 그 시기의 가장 주요한 하우스, 테크노 음악을 작업한 음악인들로 이루어진 출연 편성표가 상당히 유명하며, 이에 최대 2만7천여 명이 운집하는 중요한 페스티벌이 되었다.

이 외에 헝가리의 B.my.Lake, 스페인의 Sónar, 네덜란드의 DGTL, 벨기에의 Extrema Outdoor Belgium 와 Tomorrowland, 불가리아의 Meadows In The Mountains 등의 세계적인 전자음악 페스티벌에서도 테크노 음악은 매우 중요한 상품으로 다뤄지고 있다.

VII. 2000년대 이후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

개인이 테크노 음악을 듣기 위해 혹은 테크노 음악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장소로 더 이상 Tresor 클럽은 필요하지 않다. 테크노 음악을 만들기 위해 방 크기의,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지도 않다. 컴퓨터 기반 기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테크노 음악의 제작 및 전파는 이전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의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특히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노트북의 성능이 데스크탑 만큼 좋아졌으며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개인은 기기와 점점 더 친숙해져 갔으며, 홈 레코딩의 기술로 인해 공간의 제약은 더욱 느슨해졌다 [2]. 2000년대 중반 무렵 테크노 문화 산업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Ableton Live 및 Apple Logic pro 와 같은 디지털 오디오 워크 스테이션이 제안되고 다양한 발전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하드웨어 기반 음악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거나 이에 접근하기 위해 기울었던 노력들은,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 스튜디오와 가상 악기를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디자인하는데 집중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SoundCloud와 Beatport는 기존 음악인뿐 아니라 신진의 테크노 음악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작업물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자극을 주고 받는 생산적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VIII. 결론

전자기기 음에 기반하여 치밀하고 반복적이고 수준의

음을 반복하여 전체 곡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당대의 음악이 테크노 음악으로 명명된 이래, 테크노 음악은 수십여 년간 빠르게 변화를 겪어 왔다. 테크노 음악의 발전사를 따라가다 보면 당시의 세계적인 문화적, 사회적, 산업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기기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변동, 그리고 페스티벌 산업의 활성화 등에 따라 어떤 예술 장르보다 더 기민한 변화를 보내는 점이 관찰되고 있다. 1960년대 RCA-Mark II가 개발된 이래 전자음악을 작곡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에 1970년 Kraftwerk 및 Moroder의 작품성 높은 음악들이 전자 음악에 대한 대중과 평단의 기준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테크노 음악의 효시 격인 198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 음악 산업의 발전, Cybotron, Metroplex, Tresor Records 등의 레이블 등장, 그리고 시카고 하우스 뮤직의 융성이 테크노 음악을 하나의 굳건한 음악 장르로 편입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는 유럽의 레ιβ 파티 및 독일의 리브퍼레이드를 기점으로 주류 문화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유럽 각 지역에서 테크노 클럽이 설립되기에 이르러 전반적인 문화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들어 테크노 음악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닌 거대한 문화 산업의 중요한 재료로 활용되었으며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문화의 흐름을 생성하는 산업으로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해 전자음악, 특히 테크노 음반의 제작 및 배포가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하며,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의 등장 역시 테크노 음악에 대한 다양한 변주를 가능케 할 강력한 기술로 간주되기에 [3], 과학 기술의 진보에 따라 테크노 음악의 발전사는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1).

예술 영역을 고찰하는 과정에 있어 그 문화적 맥락 및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적 진보를 함께 고려하는 관점을 가질 때 해당 예술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산업 기술적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추후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예술 산업의 기반을 살피려는 노력이 학계에 지속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Jung, H. (2018). Finding the Research Possibilities of Computer Technologies in Art Educ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6(2), 51-57. DOI <https://doi.org/10.17703/IJACT.2018.6.2.51>
- [2] Choi, E. S., Kang, M. S., Jung, Y. G., & Paik, J. K. (2017). Implementation of IoT-based Automatic Inventory Management Syste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1), 70-75. DOI <https://doi.org/10.17703/IJACT.2017.5.1.70>
- [3] Lee, S. (2018).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to Music Composi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4), 261-266. DOI <https://doi.org/10.17703/JCCT.2018.4.4.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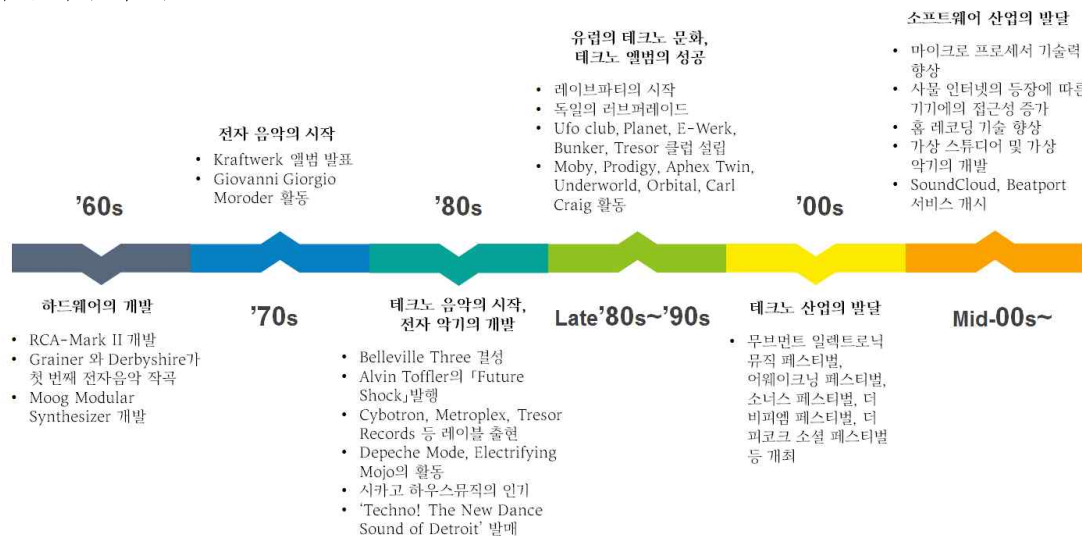


그림 1. 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테크노 음악의 발전사